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후에 다시 그를 특별히 嘉善大夫로 높여 漢城府右尹에 임명하였으나 다시 고사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또한 이를 윤허하지 않아 마침내 관직을 맡게 되었다. 다음해 정월 다시 右尹兼同知義禁府事에 임명되었다. 오래지 않아 상소문을 올려 時議를 거슬리게 되니 조정 權臣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파직당하기에 이르렀다. 현종 10년(1668) 권시 나이 65세에 조정에서는 그가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의 이름이 士林에 명망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그를 漢城府左尹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병을 칭하고 이를 사양했다. 다음해 公州鄕里로 돌아와 道山에서 학문을 강론하다. 병으로 서거하니 향년 69세였다.

權得己 權� 두 선현의 저술로는 후세인의 편집과정을 거친 '晩悔集' '炭翁集'이 있다. 두 책에서 다룬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그들의 정치론, 심성론. 격물론, 도덕수양론, 교육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Ⅰ.왕도정치론

16세기 말의 壬辰倭亂으로 조선왕조는 8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의 전쟁을 겪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2,30년대 淸兵의 두 차례에 걸친 침입도 조선왕조의 경제, 백성들의 생활, 사회 안정에 있어서 모두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석 토지가 황폐하고 경지도 크게 감소되어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떠돌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통치계층이 더욱 부패하여 백성에 대한 수탈도 날로 엄중해 졌고, 선조 이래의 黨爭은 더욱 격화되어 정치가 혼란케 되니 이는 경제의 회복을 저애하는 요인이 되었고 사회위기를 급속히 유발시켜 이조 봉건 사회는 이로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권득기·권시 부자는 이렇게 재난이 심각한 시대에 살았다. 그들은 국가가 쇠망해 가고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에 처해 있음을 목도하면서 우환의식과 애국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거의 초야에 묻혀 살았으나, 줄곧 국사에 관심을 갖고 정치혁신과 국가 진흥을 힘써 도모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殿策' '執事策'에서 그리고 각종 奏議에서, 또한 왕세자나 여러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할 때에 조정혁신과 구국방책에 대한 그들의 통치학설을 분명히 밝혔다.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우선 '왕도'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전통적인 유학의 정치사상과 학설의 주요 내용은 仁政과 德治를 제창하는 '왕도'정치이다. 권득기·권시 부자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公道'觀을 내세우고 이를 그들이 '왕도'정치를 행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만회 권득기는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방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자연과 인류사회는 모두 하나로 되어있는 전체 구조로써 "天無私覆而地無私載"라, 군주나 왕 또한 마땅히 "天地之公道" "秉至公之心"을 지켜서 천하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公道'에 위배되어 그 후에 마침내 "天不得以生物, 地不得以成物, 王者不得以平治國家"(同上)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權純甲 대종회간사장
'故事成語' 안동지역에 배포

대종회 權純甲 간사장〈사진〉이 '立春'을 앞두고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吾門에 행복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교육적인 차원으로 故事成語(고사성어) '立春大吉' '建陽多慶' '敬' 字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안동시 용상동 권영화씨 외 800세대에게 배포, 전달해 안동지역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권 간사장은 同 "고사성어"를 입춘 前에 안동지역에 2009년도에 350매, 2010년에도 500매를, 각 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권영화, 오동, 기식, 영탁씨 등과 함께 배포했다.

한편 순갑씨가 쓴 名筆 '立春大吉' '建陽多慶'은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에 담긴 故事成語이며, '敬' 字는 이퇴계(李退溪) 선생의 교육, '진정한 스승의 상'으로 풀이하면, 선생은 비록 어린 제자라 하더라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며, 보내고 맞이할 때는 항상 공손히 '경(敬)'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늘 드나들며 배우는 제자 일망정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받았으며 제자가 자리에 앉으면 의례 학부형의 안부부터 물었다고 한다.

일의 경우에도 제자가 먼 길을 떠나면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퇴계선생은 단순 지식만 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차원에서 인성교육, 인격형성에 감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심없이 일하는 권순갑 간사장은 2007년 11월 25일 선임되어, 그간 안동 능동재사를 관리하면서 재사에 청소 및 화재, 도난, 정보시스템, 소화전설치, 아시조단소이설관리, 시·아조 춘추향사 준비 등에 크게 진력하고 있다. 〈권혁세 기자〉

강릉 대사성공 종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신임회장 권 명 준씨 선출

강릉 大司成公 종회는 지난 2월 10일 안동권씨 강릉종친회관 3층에서 족친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신년하례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회의는 權赫春 총무사회로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하여 망배를 올리고, 족친간의 건강과 소망을 기원하는 신년 인사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금년 94세(무오)를 맞으며 내외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權赫升 족친님께는 장수상을, 부모님 병간호와 공경에 헌신한 權寧一 前명주군수, 서울에 거주하는 權五瑨씨에게는 효행상을, 또한 8년간 종회 재무로 헌신한 權赫吉씨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權琦錫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묘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면 임기동안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된 것은 선조님의 음덕이고 우리 권문에 크나큰 영광이라며 그간 종사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족친 및 대성회원께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權承鈺 前회장. 權五寅 前종친회장이 격려사를, 또한 權五萬 강릉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를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권문은 강릉종친회를 거점으로 화합하며 결속을 다져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총무의 종무활동보고, 權泰萬 감사의 감사보고, 權赫吉 재무의 결산보고 후 201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집행부의 임기만료에 따라 임원개선에서는 교육청 장학사와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교육공무원 출신이신 權明俊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영(先塋) 수호 및 봉행에 최선을 다하며 종무(宗務)에 관하여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후학계도에 힘쓰겠다고 하시며 족친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權明俊 △부회장 : 權五興, 權五亨 △감사 : 權寧夏, 權其東 △총무 : 權赫春 △재무 : 權賢柱

〈재무 : 권현주〉

강릉대사성공종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우석 회장

행주산성 성역화 제정에 대한 일화

권 윤 용
(인천종친회 前 상임고문)

금년은 행주산성이 성역지로 제정된지 만 50년이 되는 해인데 성역지 지정까지의 일화를 발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때는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난 9월 어느날이다. 당시 군사혁명군의 일원이고 나의 상관이기도 한 중정 경기지부 특할과장인 안근원 육군중령과 국민운동본부 경기도 지부장인 이명춘 육군대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군사혁명에 대한 전후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문득 생각난 것이 권율장군의 대첩지인 행주산성이다. 당시 행주산성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워낙 경치 좋은 한강이 굽어보이고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행보로 황폐화되어 사적지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이곳을 성역지로 제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권율장군의 업적이 커서 그런지 좌중 전원이 찬성했다.

당시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 앞에 소재했고 국민운동본부 경기지부도 도청내에 있었다. 결국 집행책임자는 지부장 이명춘 대령으로 낙착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성역화사업에 대한 결재가 떨어졌다고 전해왔다. 권가문중의 한사람으로 이때처럼 기쁜 일은 없었다.

어쨌든 주무관청은 경기도청이고 주관책임자는 내무국장 백태신 육군대령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다.

10월 어느날 안과장이 도면 몇장을 들고와 보여주는데 펴보니 행주산성에 건립될 기념탑 도면이다. 어느 것이 좋냐고 묻기에 병풍처럼 생긴 것이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지금 세워져있는 전봇대같이 길고 높은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나는 행주산성 주변에 산도 없고 장애물이 없는 우뚝 솟은 언덕인데 거기다 높은 것을 세우면 볼꼴 사납다고 했더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탑옆에 병풍같이 생긴 탑도 세워져 있어 아마도 나의 주장에 대해 배려한 것이 아닌가하고 자위도 해보았다.

1964년 군정(軍政)이 민정(民政)으로 이양되고 나는 본부로 영전되어 인천에서 출퇴근하며 업무에 쫓기다 보니 행주산성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다. 1971년 3월 내가 속해 있는 인천화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내달 식목일에 행주산성에 기념식수를 하자는 안건을 제안했더니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국 묘목식수는 나의 몫으로 떨어져 월말이 다가오자 용호·영언 두 족친을 대동을 현지시찰을 나갔다. 산성입구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짓고 고양군청에서 관리소장과 조경책임자 등 두 명이 파견나와 있었다. 산성은 여전히 황폐화 상태인데 예산이 배당되지 않아 손을 못대고 있다 한다.

식수를 하려면 일본산 니끼다 소나무가 제격이라기에 다음날 산림청에 부탁하여 전국 묘포를 뒤졌는데 강릉묘표에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식수도 마치고 이듬해 4월 인천화수회에서 가족동반으로 행주산성을 다시 찾았는데 정문도 세우고 주차장도 갖추고 외인출입을 통제하며 입장료를 내야 입산할 수 있는 제법 성역지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후손들이 성역이 지정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 하겠기에 내나이 90인데 묻어두었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참배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孝사랑

자식은 위하면서 부모 공경안 하는 것은 세상 잘못 중 제일 큰 잘못이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당신이 부모님 은혜를 저버리고 효도하지 않으며 자식들만 위한다면 당신의 자식들도 당신의 모습처럼 자기 자식들만 위하면서 당신에겐 효도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모들은 씁쓸하고 고독하고 서러운 세월일 수 밖에 없다.

모든 부모들이 노인이 될 것이니 세상 사람 모두가 슬프고 고독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내리사랑은 모두가 외롭고, 올려사랑은 모두가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개우치고 부모 공경하는 올려사랑 효를 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김삼열 효 이야기 중에서〉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지난호에 이어〉

三功臣廟增修記

비록 그러나 고래(古來)로 본부(本府)의 풍속이 근검(勤儉)하고 순박(淳朴)하여 당(唐)나라와 위(魏)나라의 유풍(遺風)이 있고 충의(忠義)의 강렬함이 남방(南方)에 으뜸이 되는 고로 명종(明宗)이 남적(南賊)을 토벌할 때나 신종(神宗)이 별초(別抄)를 막을 때나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을 피할 때에 여러번 다 능히 사력(死力)을 다하여 공적을 세웠으므로 그 당시 임금들이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부(府)를 도호부(都護府)로 높이고 도호부를 대도호부(大都護府)로 높였으니, 이로써 말하면 그 처음에 땅으로써 고려에 항복한 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신하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원군을 맞이하여 역적을 토벌하였으니 오히려 후인(後人)에게 충의지심(忠義之心)을 격발(激發)시킨 것이며, 이것은 고인(古人)이 이른바 '향선생(鄕先生-지방의 德望있는 선비)이 죽으면 가히 지신사당(地神祠堂)에 제사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 말하기를 이미 삼공신묘(三功臣廟)라 하였으니 권씨에게만 전속(專屬)한 것이 아닌데 유독 권씨의 자손만이 제사를 주간(主幹)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나, 생각하여 보건대 그 당시의 모든 사기(事機)가 다 권공(權公)의 알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유민(遺民)들이 그 은덕을 잊지 못함이 더욱 권공에게 있고, 하물며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일을 더욱 숭상(崇尙)한 자가 다 권씨의 후손이니 권씨가 주간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움이 되겠는가? 자금(自今) 이후로 그 정한 규범을 어김이 없이 영구히 받들어 준행(遵行)함이 좋을 것이다. 후래(後來)에 사람들이 혹 불행히 시변(時變)을 만날지라도, 그때의 나라는 망하는 신라가 아니요, 그때의 도적은 역적 견훤이 아니며, 그때의 군사(軍士)는 고려의 정의군(正義軍)이 아닐진대, 내가 권도(權道)를 행한다 하여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국법(國法)이 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또한 깨닫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황(滉)이 또한 태사공(太師公)의 외파(外派) 후예(後裔)로서, 더욱 숭상하는 일에는 비록 관여하지 못하나 부사(府使)의 청하는 기문(記文)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말하는 것이다.-가정(嘉靖)40年(서기 1561년) 신유(辛酉) 8月 日 가선대부(嘉善大夫) 전공조참판(前工曹參判) 진성(眞城) 이황(李滉)은 기록한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홈페이지 운용안내

홈페이지 주 메뉴는 ①대종회종친회/②파종회/③종친회청년회/④선원시조/⑤보학/⑥종보PDF/⑦유적지순례/⑧게시판의 8개항목으로서 ①②④⑤⑥⑦은 관리자가 운영하고, 종친회는 해당 기구에서 입력하며, 게시판중 자유게시판은 일반회원가입자가 사용하며,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각 문중 및 종친회별로 게시판 운영자를 임명하여 자체의 행사 및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회원가입시 기구별 관리 책임자를 기록함으로써 본부에서 준관리자로 승인을 해준 후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없기 바라며 종친회 수정시 (비밀번호 1번) 관리자 이외의 수정을 금합니다. 아울러 파종회, 지파종중은 종친회란의 지파종중과 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 〈안동권씨종보 편집인 권경석〉

창수공종회 정기총회 안내

안동권씨창수공종회(安東權氏 倉守公宗會)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종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3월 12일(토) 오후 13시
■ 장 소 : 감내재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75-1)
■ 의 안 : 1호 :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호 : 집행부 임기만료에 대한 재구성
3호 : 2001년 계약 변경의 건
4호 : 기타 안건
■ 연 락 처 : 총무 권병기 010-5093-7676

2011년 3월 1일

안동권씨창수공종회 공동대표 권병홍, 권혁준, 권병성